

박성택의 파격... "현장서 답 찾자"

(중소기업중앙회장)

중소기업 일일사원 되기 등 현장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



건의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현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 제대로 된 중소기업 지원 정책이 나올 수 있다는 박 회장의 철학에서 나온 것이라는 게 중소기업중앙회 측 설명이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사진)의 잇따른 파격 행보가 화제다. 업종별 지원 정책을 발굴하는 전담 조직을 신설한 데 이어 임직원 전원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일일사원 체험 프로그램을 가동하기로 했다. 지난해 3월 취임 이후 '현장에 답이 있다'고 강조해온 박 회장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기 위한 조치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5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320여명의 전 임직원이 중소기업을 찾아 현장 체감경기와 애로사항을 파악하는 중소기업 현장 바로 알기 사업을 벌인다고 24일 발표했다.

중소기업 체감경기 조사 등을 설문조사 형식으로 해온 중소기업중앙회가 임직원들을 현장에 직접 파견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번 현장 조사에서 발굴한 아이디어는 20대 국회 등에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해 4월 현장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산업지원본부와 업종별 위원회를 신설하는 조직 개편을 단행하기도 했다. 회원사인 900여개 업종별 협동조합과 90만 중소기업을 위한 맞춤형 지원 정책을 발굴하겠다는 것이다.

업무 스타일에서도 파격을 연출해왔다. 박 회장은 취임 직후 회장실이 아니라 사무실을 직접 돌며 업무보고를 받았다. 업무보고 방식도 바꿨다. 보고하고 지시하는 것보다 현안에 대해 토론하고 직원들의 생각을 경청한 뒤 임무를 처리한다.

박영태 기자 pyt@hankyung.com



이달의 으뜸중기제품 **솔미테크** 가정용 헬스카메라 '리핏캠'

"손가락만 한 카메라로 귓속까지 꼼꼼히 봐요"

신승철 솔미테크 대표는 아이가 아플 때 중이염을 종종 걱정했다. 열이 나면 동네 병원으로 뛰어가 아이 귓속을 확인했다. 중이염은 어린아이에게 자주 발생하는 질환으로 심하면 뇌수막염 등 합병증을 불러온다.

신 대표는 '전자체온계도 집집마다 하나씩은 있는데 귓속을 찍는 카메라는 왜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귓속을 확대해 볼 수 있는 카메라 개발에 들어가 지난 1월 가정용 헬스카메라 '리핏캠'을 내놨다.

◆치아 확인하고 곤충 관찰까지 리핏캠은 신체 부위 등을 확대해 볼 수 있게 한 제품이다. 손가락 크기 만한 이 제품은 끝 부분에 초소형 카메라가 달려 있다. 이카메라로 귓속과 콧속, 입안, 치아, 두피, 피부 등을 최대 50배까지 확대해 들여다볼 수 있다. 카메라에는 LED(발광다이오드) 조명이 달려 있어 어두운 곳에서도 밝게 보인다.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모바일 기기와 케이블로 연결된다. 카메라로 찍은 영상을 모바일 기기를

통해 실시간으로 전송해 확인할 수 있다. 사진을 찍거나 동영상 촬영을 하는 기능도 있다. 모바일 기기로 전원을 공급받아 별도의 배터리가 필요 없다.

신 대표는 처음에는 중이염 판별용으로 제품을 개발하다가 다양도 생활형 카메라로 개념을 바꿨다. 의료기기 등록하면 판매

카메라에 LED 조명 달려 스마트폰·태블릿PC 연동

ETRI 연구원 출신이 창업 산업용 헬스케어 강소기업

가 까다롭고 복잡한 승인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이다.

제품 컨셉트가 바뀌면서 활용할 수 있는 용도는 훨씬 넓어졌다. 이 제품은 아이들이 곤충, 식물 등을 확대하거나 애완동물의 상태를 파악하기에 좋다. 침구나 침대 매트리스를 확대해 집먼지진드기의 존재 여부도 알 수 있다.

산업용으로 쓸 수도 있다. 직물의 패턴을 확대해 불량 여부를 판별하거나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정보기술(IT) 부품을 정밀하게 볼 수 있다. 인쇄물의 상태를 확인할 때도 요긴하다. 신 대표는 "지카 바이러스 진단용 카메라 용도로 코스타리카에 100여개를 수출했다"며 "응용할 수 있는 곳이 많다"고 설명했다.

◆연구원으로 일하다가 창업 신 대표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연구원 출신이다. 2009년까지 10여년을 근무했다. 헬스케어 제품 개발을 주로 했다.

안정된 직장을 박차고 나온 것은 사업을 해보고 싶은 열망 때문이었다. 그가 개발한 기술이 민간 기업에 이전돼 '대박'이 난 것이 기가 됐다. 기술은 신 대표가 제공했지만 돈은 기술을 이전받아 사업화한 기업이 벌었다. 해당 제품의 매출은 수백억원에 이르렀다. 그는 "좋기도 했지만 허무함도 컸다"고 말했다.

그는 2010년 창업 후 다양한 제품을 개발했다. 가슴에 붙이면 심전도, 맥박 등 생체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송할 수 있게 한 제품이 대표적이다. 운동선수의 상태를 감독이 실시간으로 확인한 뒤 교체 시기를 정하거나 피로도를 측정하는데 도움을 준다. 수면 패턴을 분석하는 제품도



신승철 솔미테크 대표가 가정용 헬스카메라 '리핏캠'의 작동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안재광 기자

있다. 측정기를 가슴이나 손목에 부착한 뒤 맥박, 스트레스 등을 수치화해 기록하는 게 주된 기능이다. 스마트폰과 연동해 체중 및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리핏스탁' 등 생활형 제품도 개발했다. 리핏캠의 카메라를 찢기보다 얇게 제

작해 이비인후과에서 쓰는 초소형 정밀 카메라의 '가정용 버전'도 내놓을 예정이다. 신 대표는 "다음달 TV 홈쇼핑 방송을 시작하는 등 적극적으로 판로 개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대전=안재광 기자 ahnj@hankyung.com

◆'이달의 으뜸중기 제품'은 이메일(art@hankyung.com)로 신청받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신문 홈페이지(event.hankyung.com)를 참조하세요.
◆이달의 으뜸중기 제품 △피엘케이테크놀로지-ADAS CAM 옵티언 (02)6675-0202 △솔미테크-가정용 헬스카메라 리핏캠 (070)7558-9877 △이피텍-구강세정기 워터프로스 (063)236-0988 △체어플러스-덩키의자 (031)435-2244

www.kwpower.co.kr 인용과 신뢰의 100년 기업

안정적 노후연금! 월 250만원 연금발전소!

99KW 설치기준

사업설명회 개최안내

- ▶ 일시: 2016년 4월 28일 목요일 PM 2시
- ▶ 장소: 베스트웨스턴 국도호텔 3층 튜올림홀
- ▶ 주소: 서울시 중구 을지로 164
- *예약접수 선착순 50명*

신기후체제에 따른 유망사업
UN 화석에너지에서 청정에너지로의 대전환

한국전력과 장기계약을 통한 안정적인 수익사업
정부에서 지원하는 신재생에너지 사업

빛나는 투자! 21세기 노후연금!

99KW 설치기준, 평균 250만원 월수익(예상)

- 태양광 발전 예상수익률 10% 이상
- 토지 지가 상승에 따른 시세 차익(토지 분할 등기 이전)

태양광발전소 분양

- 충북 제천시 잔여분 99KW 5기 / 150KW 1기
- 충남 금산군 1MW 4기
- 경북 성주군 2MW 1기
- 경북 영천시 3MW 1기

수익형 태양광 발전사업이란?

- 개인이나 법인 누구나 태양광 발전소를 짓고
- 한전에 전기를 팔아서 수익을 올리는 사업

안정성 : 정부에서 지원하는 신재생에너지 사업
한국전력과 장기 계약을 통한 안정적인 수익보장

수익성 : 투자금 대비 어떠한 금융 상품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높은 수익률
25년 모듈 효율 보증 (30년 운영)

한국전기공사협회
전기공사업면허(제 대구-00973호)

KYUNGWONPOWER
경원파워
대구시 수성구 회랑로 164(만촌동 1331-8)

상시 방문 상담 가능

1644-4192

010-5110-5660

"휴대용 음악편집기로 세계 1위 도전"

음악장비업체 제이디사운드 미국·일본 등 20개국 수출

김희찬 제이디사운드 대표가 자체 개발한 휴대용 음악 편집기의 장점을 소개하고 있다. 이현동 기자

김희찬 제이디사운드 대표는 24일 "신제품 'GODJ 플러스'로 미국 시장 공략에 속도를 붙이겠다"며 "5년 안에 글로벌 디제잉기기(음악 편집기) 시장 1위인 일본 파이오니아를 넘어서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제이디사운드는 클럽 등에서 쓰는 대형 디제잉 장비를 손바닥만 한 크기로 줄인 제품을 내놓으며 '휴대용 디제잉기기'란 새로운 시장을 연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이다. 2011년 창업 전 휴대폰과 MP3 등에 들어가는 오디오 프로세서(AP) 개발 업무를 한 것이 창업으로 이어졌다.

김 대표는 "일렉트로닉 댄스 음악(EDM)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음악을 마음대로 편집할 수 있는 디제잉도 노래방처럼 하나의 '문화'가 될 수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매출의 약 80%를 영국 일본 미국 등 해외 20여개국에서 올렸다. 크기는 작지만 기능은 다 갖춘 것이 인기 요인이다. 터치스크린을 통해 음원에 스크래칭, 이

퀄리타지 등 각종 효과를 낼 수 있다. 작동법이 쉽고 가격이 50만 원대여서 300만원을 훌쩍 넘는 기존 장비보다 저렴한 것도 특징이다. 올 상반기 출시 예정인 신제품은 디제잉기기 최대 시장인 미국을 겨냥한 것이다. 이전 모델의 단점을 보완하는 데 신경을 썼다. 김 대표는 "작게 만드는 데만 집중해 기능을 밀어냈다 보니 대형 기기에 익숙한 사람들이 제품과 친해지는데 한계가 있었다"며 "크기를 노트 정도로 키우는 대신 스피커를 내장하는 등 편의성을 높였다"고 했다.

해의 크라우드펀딩 사이트를 중심으로 제품을 알리고 있다. 다음달 세계 최대 크라우드펀딩 사이트인 미국 '인디고고'에 제품을 공개한다. 일본 최대 크라우드펀딩 사이트 '마쿠아케'에서는 2억6000만 원 정도의 선주문을 받았다.

미국 현지 마케팅도 강화할 예정이다. 로스앤젤레스(L.A)를 중심으로 대형 쇼룸에 팝업스토어 형태의 매대를 늘려갈 예정이다. 김 대표는 "올해 5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겠다"며 "작곡용 기기와 스마트폰에서 쓸 수 있는 디제잉 앱(응용프로그램) 등도 내놓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현동 기자 gray@hankyung.com

바이오랜드, 치과용 의료소재 중 위생허가

화장품 원료업체 바이오랜드는 중국 식품의약품안전청(CFDA)으로부터 치과용 의료소재 '티젠(T-gen)'에 대한 위생 허가를 취득했다고 24일 밝혔다.

티젠은 임플란트 시술에 필수적인 치과용 폴라렌 멤브레인(분리막)이다. 멤브레인은 임플란트 시술에서 조직 재생에 방해되는 세포들이 치료 부위로 이동하는 것을 막아 시술 부위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빠른 회복을 돕는 역할

을 한다. 바이오랜드는 손상된 피부에 상처 치유와 지혈 작용을 하는 외과용 창상 피복재 '콜라덤'의 CFDA 위생 허가를 받기 위해 절차를 밟고 있다. 회사 측은 상반기 내에 허가 취득을 완료할 계획이다. 조미현 기자 mwis@hankyung.com